

심연을 향한 인문학자의 선회(旋回)

[서평] 김우창(2014), 『깊은 마음의 생태학』, 김영사, 516쪽.

오 윤 호*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는 인문학을 요구하고 있다. 고전 명작을 소개하거나 인문학적 삶을 강조하는 저서에서부터, 일반 대중들과 소통하며 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연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이란 표제를 단 문화적 현상이 많이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대중문화나 대학 내 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군내 가혹 행위와 인권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니, 가히 작금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인문학의 전성기’나 다름없다.

그러나 ‘인문학’은 다양한 현실 사회에서 상처받은 고독한 군중과 같이 외로운 현대인들을 치유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속에서 등장하는 폭력적이고 반윤리적인 사회 현상을 진단할뿐더러 그 해결책을 제시하며 교정해야 한다. 또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론적인 수단으로 전락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조교수

하면서, 미궁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되고 만다. 어느 철학자는 독설을 내뱉는 연애 상담가가 되어 있고, 청춘은 아픈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인문학적 소양은 군내 폭력 사건도 해결해 줄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부정부패로 점철된 사회적 갈등 상황과 개체화된 존재들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접하며, 정말 인문학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우리가 마주하는 인문학이 정말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는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하였듯, ‘인문학’도 압축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인문학 정도야 대충 관심을 가지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인문학이 대기업의 기술개발품처럼 대량생산·대량소비될 수 있다는 산업주의적인 마인드가 작용하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그 와중에 정말 ‘인문학’이라는 소비재는 이러한 현상의 표면에서 사고 팔리며 곱돌 뿐이다. 우리는 모두가 인문학을 말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진지한 인문학적 성찰과 사유는 보이지 않는 기묘한 현실에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우창의 『깊은 마음의 생태학』은 허둥대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인문학’ 책이다. 책 속에 소개된 문학 텍스트 분석은 구조적 엄밀성과 해석의 비평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인간과 사회 현실, 생태계에 대한 사유는 기존의 철학적 논의들을 재인식하고 재창조하는 지적 통찰을 보여주기도 한다. 게다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고, 에둘러서 서성거리며 인간의 조건에 대해 사유하고 스스로의 행동이 내포한 이성적 태도에 대해 질문을 해 온다. 책에 언급된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논의해야 할 학술적 가치가 높아 일반인들이 읽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김우창은 동양과 서양, 고대와 근현대를 아우르며 학제 간 연구의 진면목을 보여주었고, 영문학자이시면서도 한국현대문학에 해박한 비평을 해왔다. 5권짜리 『김우창 전지』을 비롯하여 2000년대 이후로는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자기 형성과 그 진로 인문과학의 과제』, 『자

유와 인간적인 삶』, 『행동과 사유』 등 궁색한 우리 시대의 인문학 담론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저자의 이력을 감안한다면 일반 대중에서 친절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면모로 보자면, 앞서 언급한 의문을 품고 탐구하는 태도를 수긍할만 하다.

『깊은 마음의 생태학』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시대의 인문학 열풍에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는 인문학 본연의 모습을 갖춘 책이다. 김우창은 “엄밀한 사고를 통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삶과 사회와의 조화”를 시도하며, “단순한 도덕적 신념을 심어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에 이르게 하는” 일이 인문과학의 작업(28쪽)이라고 말한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에게 치료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배가 고프지를, 왜 아픈지를 스스로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 인문학이 해야 할 업무인 것이다. 인문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원하는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른다. 또한 김우창은 인간 존재론에 대해 지적으로 인식하면서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류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내면화하고 ‘깊이’ 받아들여야 할 인문학의 태도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김우창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처음 접했던 것은 그가 유종호와 함께 번역한 아우어 바흐의 『미메시스』(민음사, 1990)에서였다. 아우어 바흐는 그 책에서 “관습이 어떻게 역사를 통하여 예술적 표현을 제약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습은 어떠한 사회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또 예술은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개조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사회와 예술의 상관성에 대해 묻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과 윤리적 태도를 의미하는 관습이 다양한 사회적 담론 현상에 특징적인 예술 형식을 만들어낸다는 사유는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비평적 방향과 예술 형식의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미메시

스』 속에서 서구 고전 명작 속 한 장면은 당대 예술 스타일 및 사회 담론과 긴밀히 연결되고 이것은 다시 2000년의 서구 문학사 속에서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서구 문학의 거대한 화음을 만들어낸다.

최근에 김우창은 한 인문학 강의에서 토마스 볼트의 『모든 계절의 사람』에 나타난 사람의 마음인 ‘양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소설 속 법철학과 종교적 신앙으로부터 정제된 토마스 모어의 양심은 다른 인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의 자유와 심성의 문제’를 심도 깊게 그려낸다. 자신의 내면에서 견고하게 융합된 종교적 신앙과 개성적 양심이 수사적 언어로 드러나는 양상 속에서, 모어의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는 헨리 8세의 권력욕을 비판적으로 조준하고 있다. 신앙·수사·양심·법(이성) 등 모어의 내적 심성에 대한 이해가 르네상스와 근세의 경계에 놓인 지식인의 정체성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침묵’을 이해하는 양심적, 종교적, 정치적 태도에 대한 비평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보다 더 시의성을 가진 논제가 된다. 탑승객을 구해야 하는 선장 및 선박직 직원들의 침묵,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 기자의 침묵, 책임 부재를 드러낸 정부 당국의 침묵 등 인간의 심성과 자기 양심의 자율성만으로는 우리 현실의 실천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기만성과 반인륜적 태도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 인문학자의 ‘양심’과 ‘침묵’에 대한 사유는 영국의 중세시대와 2014년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며, 염량세태(炎涼世態,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으면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에 대한 역사적 비판과 우리 시대의 왜곡된 자본주의 속 자율적 인간의 양심과 신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들었다.

텍스트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결국 당대 사회 담론의 역할을 펼쳐보여 준다는 지적 시각은 작은 구조가 전체구조와 긴밀하고 유동적으로 되풀이되는 프랙탈적 사유를 떠올리게 한다. 김우창은 이러한 시각을 인간 개체와 확장된 생태계에까지 적용시킨다. ‘개체적 삶의 우주적 발견’이

라는 화두는 김우창의 문학비평과 인문학적 사유의 서술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개인적 삶과 역사적 사회를 가로지르며 존재하는 ‘문학’의 위상을 미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가치로 재인식하는 『궁핍한 시대의 시인』에서부터 인간의 심성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물학적 성찰을 심화한 『깊은 마음의 생태학』까지 예술적 통찰과 역사적 이해, 인문적 사유가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김우창의 글과 저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적 사유와 서술 전략은 『깊은 마음의 생태학』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된다. 책의 전체적인 의도와 목적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첫 장 “확신과 성찰”은 W. B. 예이츠의 「제2의 강림」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된다.

빙빙 돌면서 멀어지기에
 매는 주인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모든 것 뿔뿔이 흩어지고, 중심은 지탱 못하고,
 단지 무질서만이 세상에 퍼져,
 핏빛 어두운 조수가 퍼져, 도처에 순진의 의식이 침몰하고,
 최선의 무리는 확신이 없고,
 최악의 무리만이 열광이 가득하다.¹⁾

주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매의 시선으로 바라다보는 아랫 세상은 타락한 세속의 몰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곳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하늘에서 선회하며 내려다보는 매는 타락한 현실에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응시하고 성찰하는 인문학자에 대한 은유로도 읽힌다. 이 시를 분석하며, 김우창은 혼돈스러운 현실 속에서 ‘순진의 의식’을 지키는 의례와 관습에 주목한다. 인간 삶의 지속성과 통일성은 그 의례와

1) 김종길 역, 『20세기 영미시』, 일지사, 1975, 32쪽. 저자에 의해 수정됨.

관습의 형식으로부터 나옴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의례와 관습의 의의를 밝히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내포한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문제와 수행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상호신뢰와 존경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한 예로 들며 그 연주가 육체가 보여주는 훈육된 이성이라 말한다. 즉 아름다운 연주는 “삶의 일부로 단련된 수행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높은 지적 능력이 작용된” 결과이다. 이때의 지적능력은 “객관적 형식 속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피아니스트가 어떤 곡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것은 “자아의 가능성에 충실하면서 객관적 진실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임을 강조한다. 출발은 한편의 시였지만 도착지점은 인간 윤리의 기본과 예술의 본질에 닿아 있다. 그것을 바라다보는 인문학자의 시선은 신념과 관습, 의례, 예약이 서로 깊숙이 맞물리며 인간의 이성과 육체, 문명 사이의 경계를 넘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이상적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

어쩌면 김우창의 인문적 보편주의와 이성중심주의적 시각이 진부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 내용과 전망을 전폭적으로 수긍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사회적 가치가 ‘상식’이라고 봤을 때, 김우창의 시각이 크게 현실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근 1년 사이에 참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다.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 논란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정당한 공론화를 거치지도 못하고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라져버렸고,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의 치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사회적 이슈들을 빨아들인 채 남해바다의 심연 속에 남겨져 있다. 유병언의 미스테리한 죽음과 윤일병의 타살 사건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진실의 끝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사람과 제도, 시민과 국가의 관계가 지금처럼 불신과 반목, 은폐와 조작 및 진실 공방으로 치달았던 적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건’에는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처럼 특정한 피의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원과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교정하고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및 시스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우창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말하는 것은 바른 정신이 없는 곳에 제도와 규정, 기술 행정적 조치들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관습과 의례는 (국가 및 사회의 시스템은) 개인의 삶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의 유기적 삶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사회 제도로 기능하고, 개개인은 훈육된 이성을 통해 상식적 행동과 책임감 있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상식’이 통하며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물음에 『깊은 마음의 생태학』은 명확히 마음의 확장과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라고 답하고 있다. 『깊은 마음의 생태학』은 인간 심성의 조건들과 이성의 논리를 심도깊게 다루는 ‘1부 깊은 마음의 생태학’과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 현재를 다루는 ‘2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의 경우 서로 다른 인간의 조건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지만 ‘심미적 이상’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2부의 경우 사회적 형식 속에 놓인 실존적 인간의 미래에 대한 사유의 가능성을 정리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심미적 이성 ↔ 실천적 행위 ↔ 사회적 형식 ↔ 인간 종의 진화’로 이어지는 인문 지식의 프로세스를 전제할 때에 차이의 의미가 큰 것은 아니다. 각 항목 간의 관계를 ‘↔’로 표현한 것은 김우창이 ‘깊은 마음’을 추구하면서도 생물계의 공진화(coevolution)를 추구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각 항목들의 집합이 김우창의 인문학적 프레임이고 상호관련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시이다.

김우창은 『깊은 마음의 생태학』의 머리글에서 책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깊은 마음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조건들 - 생물학적, 진화론적, 우주론적 또는 존재론적 조건에 연결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2부 4장 <깊은 마음의 생태학>에서는 책 제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가 전개된다. 먼저 인간의 마음과 자연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인식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사람의 삶을 통합하는 자연과 사회 그리고 마음가진의 깊이의 생태학”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미국의 환경론자 빌 디블과 조지 세션스의 『깊이의 생태학』에서 “깊이의 생태학은 사람들, 공동체, 일체의 자연, 이 사이에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일깨우는 방법”이라고 내용을 끌어와, 김우창은 ‘깊이’란 하나의 비유이며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구조에서 나오는 전율”이 된다고 말한다. 세계 내에서의 인간 삶은 ‘깊이’라는 공간적 체험을 전제로 하고, 인간은 그 “미적 체험을 통해 무한과 무변의 존재성을 감각”하게 된다. 깊은 마음이란 깊은 공간성에서의 회귀를 꿈꾸며, 고요와 고독의 존귀함을 익히고, 자연의 깊은 위안을 받는 실존의 체험이 된다.

심미적 이성(심성)을 확장하여 육체가 스스로 사유하고, 대상의 간극을 무너뜨려 물아일체를 이룩한다는 김우창의 사유는 인간중심적인 근대적 사유를 넘어서는 지점을 응시하고 있다. 어쩌면 김우창은 인간의 진화, 인간문명의 발달이 생물학적 진화를 압도하며 변화해 갈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심성적 공감과 보편적 이성의 “진화”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2부 1장 <진화와 인간: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김우창은 진화론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와 우리 시대의 과학문명이 처한 가치와 윤리의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그 중심에는 진화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인간중심적 생물학을 넘어선 우주적 생물학의 단초가 놓여 있다. 과학의 역사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에 있어 커다란 토대를 이룬 이론이면서도 현대 인간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준 과학사상이다. 그러나 진화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연도태의 개념이 당대를 지배하는 무자비한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의 논리에 맞물리면서 제국의 식민지에 대한 지배를 정

당화하고, 인종 간의 유전적 우월성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진화론으로 인해 촉발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논의들은 내면적으로 ‘자연주의적 인간중심주의’를 강화해 나간다. 김우창은 근대 사회가 내면화하고 있는 바로 그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6500만년 전 멸망한 공룡은 종의 진화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혜성에 의한 자연 생태계의 붕괴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하며, 생명 그 자체의 존엄성과 생물학적 가치에서 벗어나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한다. “한 종의 진화는 다른 종과 환경과의 공진화(coevolution)가 된다. 이러한 공진화는 혼돈의 가장자리에 균형을 잡는 데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요구는 자연과학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인문과학적 사유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한다. 자연과학의 단선적 합리성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보편적 유대감과 생명체에 대한 자비의 느낌을 호명하는 윤리학의 맥락이 요청된다. 과학기술이 모든 자연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드러난 세계는 감추어진 세계의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예측불가능한 인간과 자연의 삶을 응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가 사물이 된 심성, 인간 너머의 초월적 타자에 대한 공감 이 범신론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깊은 마음의 생태학” 속에서 인간다움의 가치와 조건을 상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김우창은 이 장의 마지막에 ‘큰 마음’이라는 절 부분에서, 미국의 시인 로빈슨 제퍼스의 『카멜 꽃』 일부를 소개한다.

시원의 아름다움은 암석의 결과 알갱이 속에 살아있다.
 우리의 벼랑을 타고 오르는 끝없는 태양처럼. 그러나 사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비인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 거기서 온
바위와 태양처럼 자신을 가져야 한다.

시적자아는 암석이 가진 하나의 결과 알갱이 속에서도 자연의 궁극적 기원을 환기해낸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를 벗어나 자연처럼 존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때의 “비인간화”는 물인간도 탈인간도 아닌 자연과 상호 소통하며 공존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연의 비인간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의 세계를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큰 마음’이란 “사람과 종족과 바위와 별들이 생성소멸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있는 유기적 전체의 조화를 우러르는 것을 배우는 마음”이라고 한다. 또한 “깊고 넓은 마음의 무한성 속으로 해방되는 것”이며, 이것은 “이웃과 그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모든 생물체와의 사심없는 공간에서 오는 해방감”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인의 마음과 철학자의 사유, 과학자의 지식을 동일시함으로써, 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인간의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물로 돌아가 그저 바라보며 형상적 인식을 내장하라”나 “관조적 체험의 표현에 더 충실하려는 것이 문학이나 미술 또는 음악과 같은 예술”이라고 언급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예술이란 단순히 아름다운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상과 일치되는 감각적 경험의 승화이며 관조하고 사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상업화된 영상 장르를 빼고는 대부분의 예술 장르가 일반 대중과 유리되어 가고, 그마저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의 예술을 떠올리며, 우리 시대의 예술 특히 문학은 어떠한 스타일(style)이며 도래하는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의문을 품으며 그것을 대하는 심미적 이성의 전략과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그동안의 김우창의 인문학적 사유는 근대적 이성의 존재 범위와 실존적 위치에 대한 사유로 인간과 그 삶의 인문학적 이해를 밝히려는데 있었다. 왜곡된 자본과 진보하는 과학문명 속에서 인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지구 단위의 환경 파괴는 인간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느리지만 인류 종말을 예상할만큼 착착 진행되고 있다. 멀티미디어와 새로운 지식 네트워크는 근대적 지식 체계를 해체·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간’의 출현은 어디로부터 시작될지, 인간의 미래에 대한, 21세기 인문학에 대한 사유는 어떠한가 할지, ‘근대 휴머니즘’을 넘어서서 21세기 ‘인간’과 ‘지식’에 관한 인문학 패러다임 창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 출발지점에서 한국 인문학의 패러다임을 재인식하는데 있어 김우창의 『깊은 마음의 생태학』은 큰 걸음을 내디뎠다.

『깊은 마음의 생태학』을 읽으며 자꾸 백일몽처럼 심연을 일정한 속도로 맴돌며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매’이거나 ‘고래’를 상상한다. 이때의 심연은 자아와 타자, 감각과 이성, 이성과 실천 사이에 놓인 근본적인 괴리나 진리를 향한 보편일지 모른다.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회는 테리다의 차원처럼 결코 욕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존재없음의 공포가 아니라, 존재와 대상, 사유와 행동의 긴장이 “내면의 투쟁을 통해 터득한 신념”에 따라 자연스러운 습속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마음은 그 세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한없이 되풀이되는 회귀로서의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늘 존재증명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과정’이며 ‘변화’, ‘생성’으로서의 ‘사유하는 존재’를 실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심연 깊숙이 빨려들어 소멸할지, 창공을 향해 날아올라 존재의 탈주를 경험할지, 아니면 ‘영원회귀’에 빠져 보편의 괴물을 만날지도 개인의 현실적 삶에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우리 시대에 인문학자가 선회해야 할 심연은 무엇일까? 심

연, 그 “근원적 깊이, 근원적 공간의 체험”은 어떤 진리의 사건으로 경험할 것인가?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 답을 아래와 같은 김우창의 글에서 찾아본다.

자아는 되돌아봄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타자의 되돌아봄을 내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되돌아봄의 습관과 훈련을 바탕으로 하여서 비로소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말하자면, 덮어쓰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이 반성의 팔림세스트(palimsest, 거듭쓴 양피지)로 작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되돌아봄의 공간은 공감적 일치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타자만이 아니라 익명의 다수의 타자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관점을 포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125쪽)

자아는 ‘나’의 것이지만 결코 ‘나’로 온전히 수렴되는 소유물이 아니다. 끊임없이 습관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재인식해야 하며 재설정해야 하는 변화하고 움직이는 대상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나’를 벗어나 ‘타자’의 시선과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적 삶의 숭고한 에피파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심연의 선회처럼 자기 내면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함께 ‘진화’하게 된다. ‘진화’에 앞서 ‘습관과 훈육’이 인문학적인 ‘나’의 본모습일지도 모른다.